Investor Relations 2019

ORANGELIFE

2019년 1분기 실적발표자료

Disclaimer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였습니다. 그러나 현 시점에서 회사의 계획, 추정, 예상 등을 포함하는 미래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회사는 제반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K-IFRS 1116호 '리스'와 K-IFRS 1109호 '금융상품'을 적용하였습니다. K-IFRS 1109호 적용시 K-IFRS 1104호 '보험계약'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(Overlay approach)을 적용하였으며, 당분기 이전 재무제표는 동 기준서에 따라 소급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.

ORANGELIFE

2019년 1분기 요약

- ✓ 2019. 2. 1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
- ✓ 2019. 2월 중순 자사주매입 개시
- ✓ FC 채널, 전년동기 수준의 신계약 물량 유지 하 보장성 비중 확대
- ✓ BA 채널, 전년동기 대비 높은 판매 물량 달성
- ✓ 연초 상승세를 보였던 금리는 직전분기 대비 하락세로 분기 마감
- ✓ 강력한 자본력 및 높은 ROE 견지

01. 주요 경영 성과
02. 회계기준 변경 (2019.1.1 반영)
03. 신계약 성장
04. VNB (신계약가치) 성장
05. VNB (신계약가치) 마진
06. 수입보험료 및 이익
07. 이원별 손익
08. 자산운용 성과
09. 준비금 / 부담금리
10. 효율성
11. 자본적정성
12. 향후 실적발표 일정

01. 주요 경영 성과

(단위: 십억원)

	1Q 2019	1Q 2018	yoy
신계약 APE	**181.9**	**149.9**	**21.4%**
보장성 APE	*101.5*	*85.4*	*19.0%*
신계약가치 (VNB)	**30.4**	**39.6**	**-23.3%**
Restated VNB ('18년말 재산출 기준)	*30.4*	*30.9*	*-1.6%*
수입보험료 [1)]	**1,088.7**	**1,043.6**	**4.3%**
세전이익(투자실현손익제외) ORBT [2) & 3)]	**101.5**	**100.7**	**0.8%**
당기순이익 [3)]	**80.4**	**88.9**	**-9.5%**
총자산 [3)]	**32,287.2**	**31,425.1**	**2.7%**
운용자산 [3)]	**25,792.0**	**24,738.0**	**4.3%**
운용자산이익률 [4)]	**3.8%**	**4.0%**	**-0.1%p**
자기자본 [3)]	**3,039.9**	**3,510.5**	**-13.4%**
RBC 비율	**431%**	**441%**	**-10%p**

주1) 변액보험 포함
주2) 조정세전이익(투자실현손익제외): 세전이익-투자실현손익(금융자산 & 외화처분손익, 손상차손)
주3) 2019.1.1부터 IFRS9(금융상품)과 IFRS16(리스)을 적용함. IFRS9 적용시 IFRS4(보험계약)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(Overlay approach)을 적용, 과거 수치는 소급 재작성하지 않음
주4) 조정운용자산이익율 & 12개월 누계기준: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한 운용자산 기준

01. 주요 경영 성과

✓ 전체 APE 21.4%의 높은 성장세 시현
- 보장성 APE, FC채널의 보장성 판매 확대에 힘입어 19% 증가
- BA채널, 판매가 저조했던 전년동기 기저효과로 물량 증가

✓ VNB는 금리 하락에 따른 NIER[1] 차이로 전년동기 대비 23.3% 감소하였으나,
'18년말 기준 NIER(2.90%)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'18.1분기 최종 VNB 대비로는 1.6% 감소에 그침

✓ ORBT(조정세전이익)는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, PAT(순이익)는 투자실현손익 감소로 하락

✓ 총자산 및 운용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.7%, 4.3% 증가

✓ IFRS9 기준으로 산출한 '19.1분기 자기자본은 기존 IAS39 기준 '18.1분기 대비 13.4% 감소했으나,
IFRS9을 적용한 '18.4분기 대비로는 1.4% 증가

✓ RBC 비율은 431%의 높은 수준 유지 (전년동기 대비 -10%p, 직전분기 대비 +6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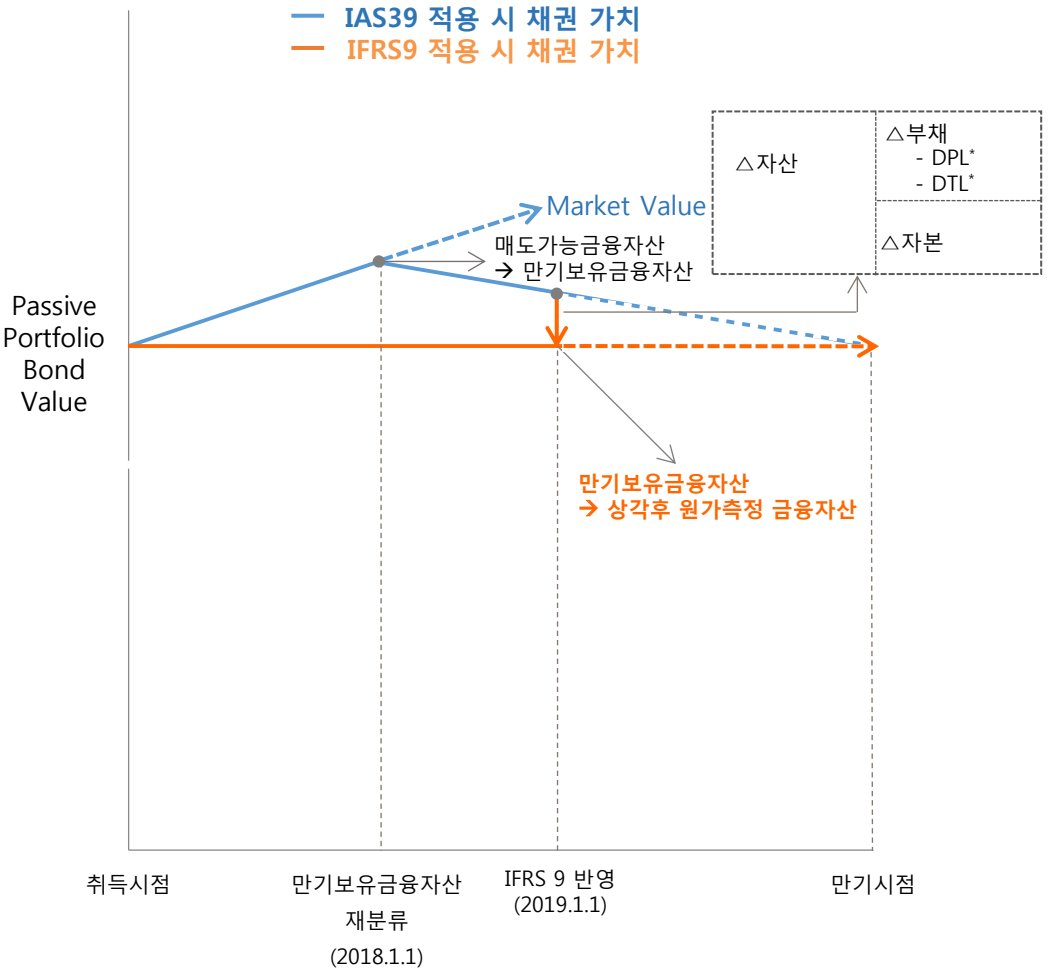
✓ 2월 중순 개시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3월말 기준 306억원 집행

주1) NIER: Net Investment Earnings Rate

02. 회계기준 변경 (2019.1.1 반영)

IAS39 → IFRS9

* 단일채권 가정,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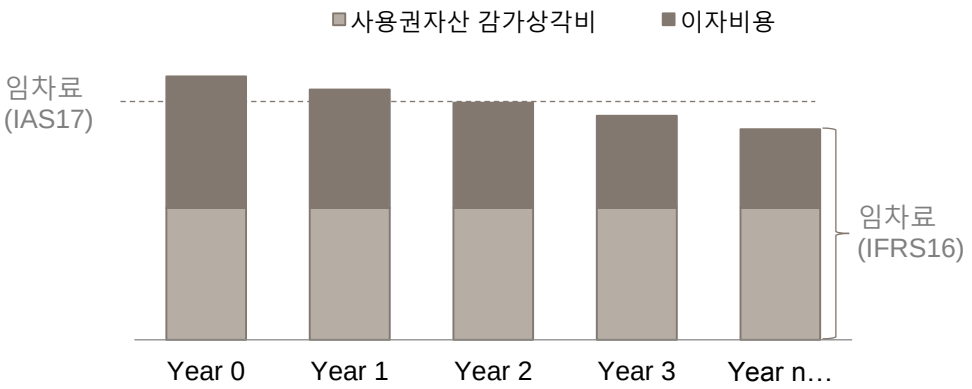


*DPL: Deferred Profit Liability 계약자지분조정, DTL: Deferred Tax Liability 이연법인세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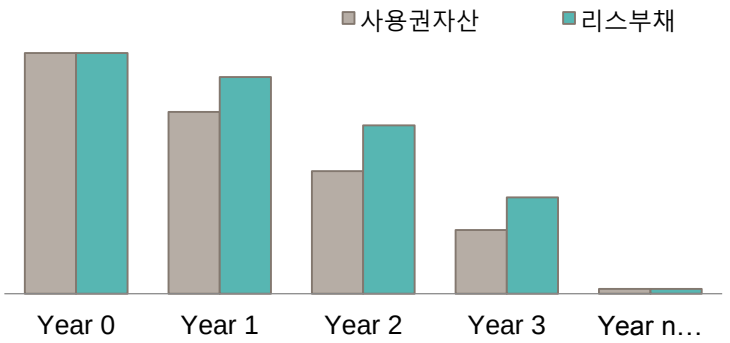
IAS17 → IFRS16

* 그래프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

<손익 측면>



<자산부채 측면>



02. 회계기준 변경 (2019.1.1 반영)

IFRS9 '금융상품'

- ✓ 신한금융그룹의 회계정책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하여 IFRS9(기업회계기준서 1109) 적용
- ✓ IAS39 상의 만기보유(Held-to-Maturity) 채권은 IFRS9 하에서 상각후원가 (Amortised Cost) 채권으로 계정 분류 변경
- ✓ 기존 만기보유증권은 2018년 1월 1일에 공정가치로 매도가능채권에서 재분류 되었음
- ✓ 상각후원가(Amortised Cost) 자산은 취득원가와 액면가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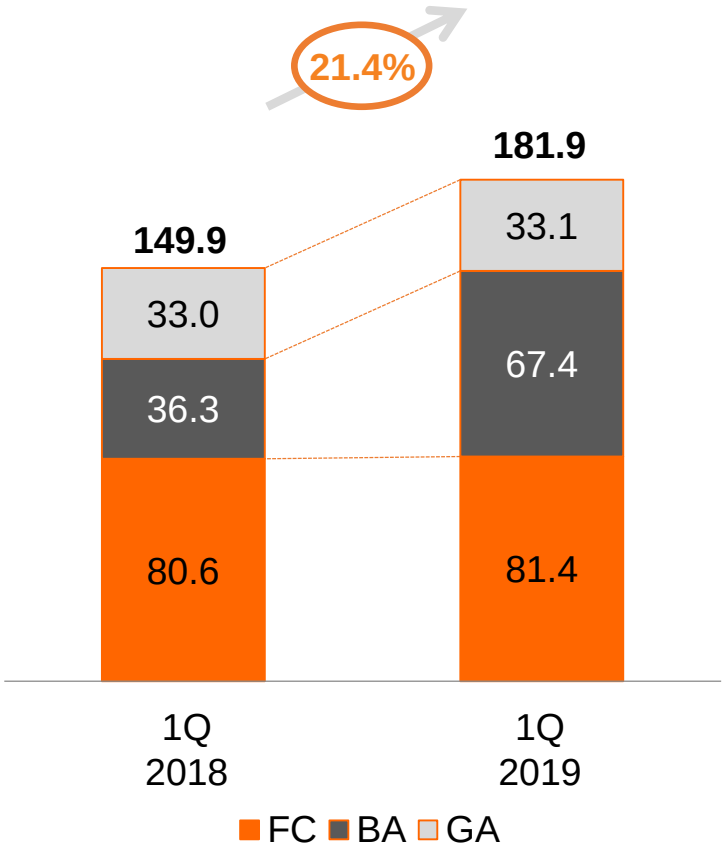
IFRS16 '리스'

- ✓ '19.1.1부터 '리스계약'에 대하여 IFRS16(기업회계기준서 1116)으로 기존 회계기준서를 대체 적용해야 함
- ✓ IAS17 기준 운용리스 임차료비용은 IFRS16 리스비용에서는 다음 2가지로 인식
  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
  ②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
- ✓ IAS17과 달리 IFRS16 기준에서는 운용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함
  ① 사용권자산
  ② 리스부채(향후 지불할 임차료의 현가)
- ✓ IAS17과 IFRS16의 전체적 손익효과는 동일하나 상각방식 차이로 인해 IFRS16 기준이 초기에 비용을 더 인식

03. 신계약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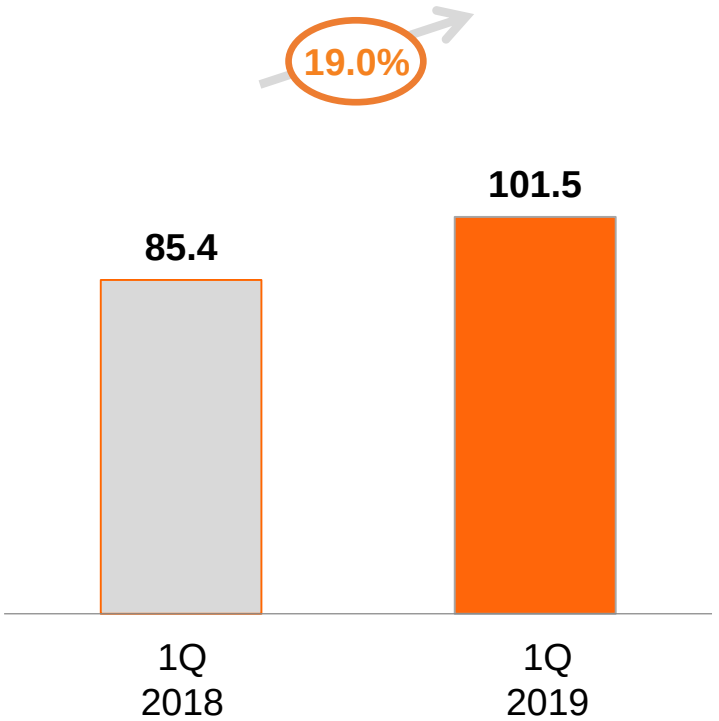
신계약 APE 성장

(십억원)



보장성 신계약 APE 성장

(십억원)



APE: Annualized Premium Equivalent 신계약연환산보험료
FC: Financial Consultant, BA: Bancassurance, GA: General Agency

03. 신계약 성장

전체 APE 21.4% 증가(+320억원)

- ✓ FC채널은 APE 증가율이 1%에 그쳤으나 보장성 믹스는 전년동기 65.4%에서 84.2%로 개선
  - 변액상품(연금·저축)의 물량 감소를 신규 보장성상품 판매로 상쇄
- ✓ BA 채널은 판매가 저조했던 '18.1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성과 달성
  - 일정 수준의 목표 물량이 확보되면 이후 판매 물량 조절 예정
- ✓ GA채널은 보장성 중심의 판매 전략 불구, 생손보간 경쟁 심화로 0.3% 증가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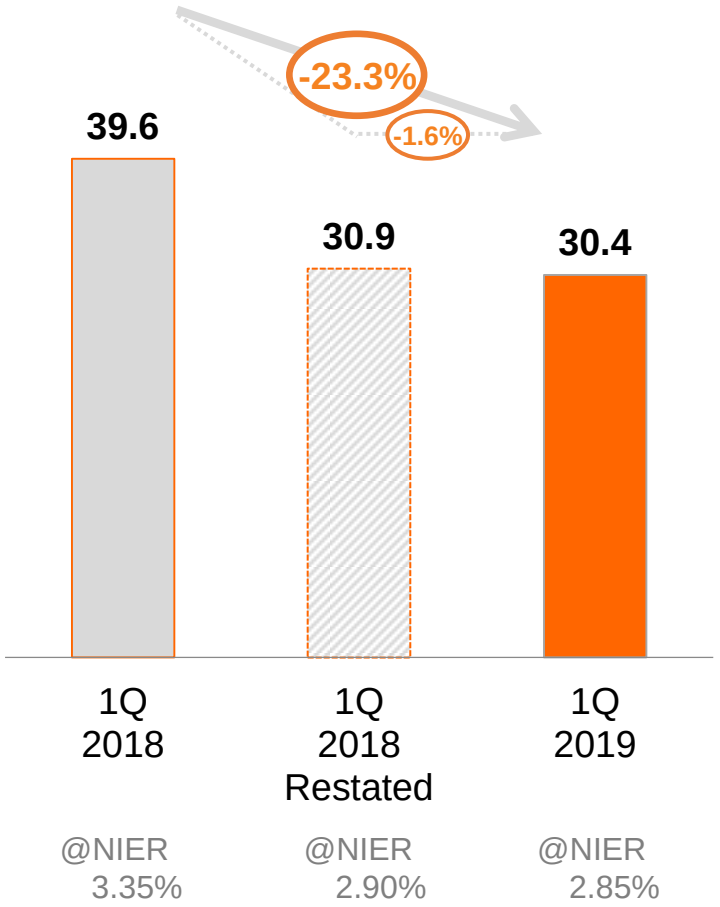
보장성 APE 19.0% 증가 (+162억원)

- ✓ FC채널은 신상품 출시 및 다양한 프로모션 시행 효과로 '18.3분기 리브랜딩 및 대주주 변경 발표 후 나타났던 일시적인 판매 위축 현상에서 완전히 회복
- ✓ GA채널은 기업고객에서 개인고객 중심으로 판매 전략이 변화된 가운데, 계약건수는 76% 증가했으나 보장성 APE는 1.2% 증가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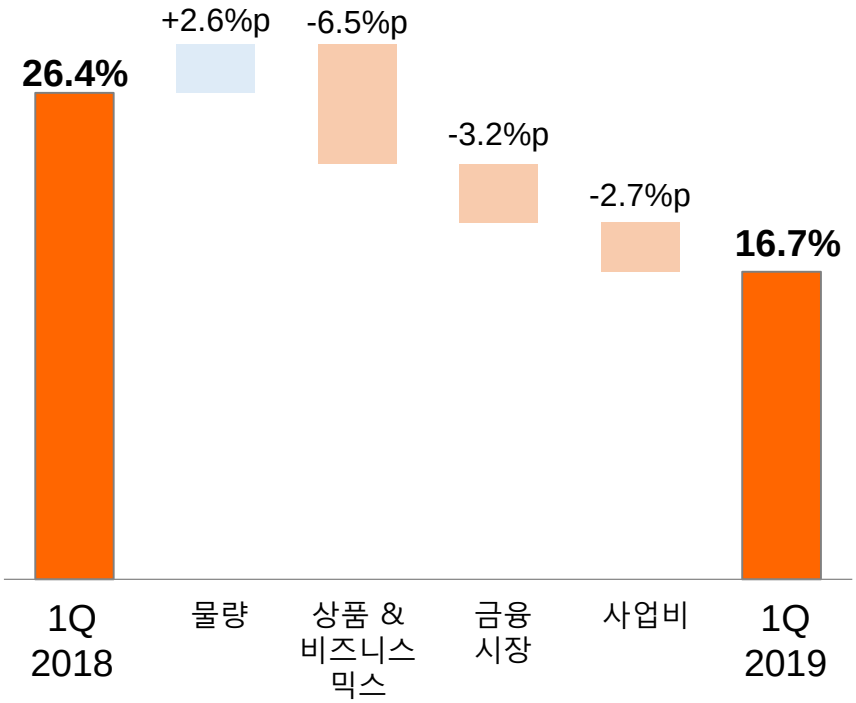
04. 신계약가치 (VNB) 성장

VNB 성장

(십억원)



VNB 마진



VNB: Value of New Business 신계약가치

04. 신계약가치 (VNB) 성장

VNB 전년동기 대비 92억원 감소

- ✓ '19.1분기 금리 하락 영향으로 NIER[1] 가정 2.85%로 하향 조정 ('18.1분기 대비 -50bp, '18.4분기 대비 -5bp 인하)
- ✓ '18.1분기 VNB는 396억원(NIER 3.35%)에서 '18.4분기에는 309억원(NIER 2.90%)으로 재산출된 바 있음
- ✓ NIER 하향으로 Investment Margin 가정이 축소되며 VNB 성과 제한
- ✓ 변액(연금·저축)상품은 저금리 환경에서 좋은 대안이나, 수요는 여전히 부진
  - •BA채널 내 변액 비중 5%로 소폭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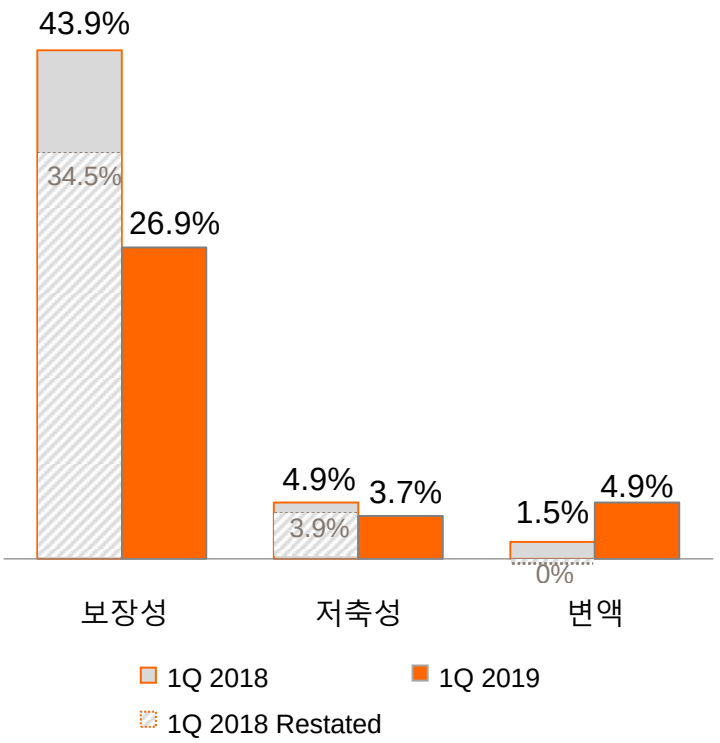
VNB 마진 16.7% (-9.7%p)

- ✓ 금리 하락에 따른 NIER 추가 하향 조정으로 VNB 마진 3.2%p 감소
- ✓ 전년동기 대비 BA채널 비중이 증가하며 Product & Business Mix 측면에서 VNB 마진 6.5%p 하락
  - •Slow Start를 보였던 '18.1분기와 달리 '19.1분기 BA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때문
- ✓ FC 및 GA 채널의 판매력 안정화를 위한 비용 증가로 VNB 마진 하락
  - •신한지주 편입시점('19.2.1)까지 이어진 채널의 생산성 및 활력 제고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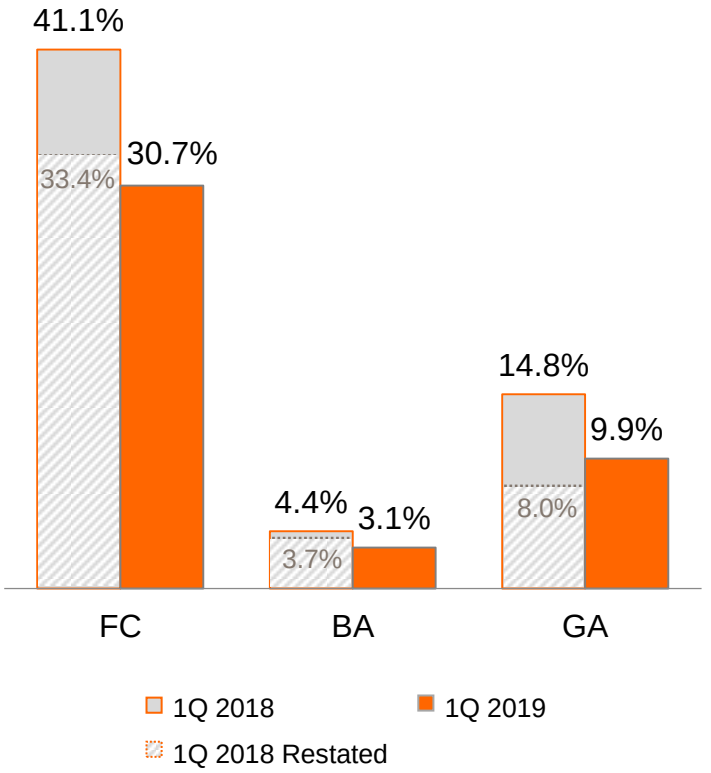
주1) NIER: Net Investment Earnings Rate

05. VNB (신계약가치) 마진

상품별 VNB 마진



채널별 VNB 마진



05. VNB (신계약가치) 마진

상품별 마진

- ✓ NIER[1]은 VNB 산출에 주요한 변수로서 특히 보장성 및 저축성 상품 마진에 영향 큼
- ✓ 보장성은 NIER 하향 및 FC·GA 채널의 비용 증가 영향으로 '18.1분기의 'Restated' 마진(34.5%) 대비 -7.6%p 하락
- ✓ 저축성은 BA 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이 NIER 하향에 따른 영향을 일부 상쇄하며 '18.1분기 'Restated' 마진(3.9%) 대비 0.2%p 하락에 그침
- ✓ 변액은 NIER 영향이 크지 않음

채널별 마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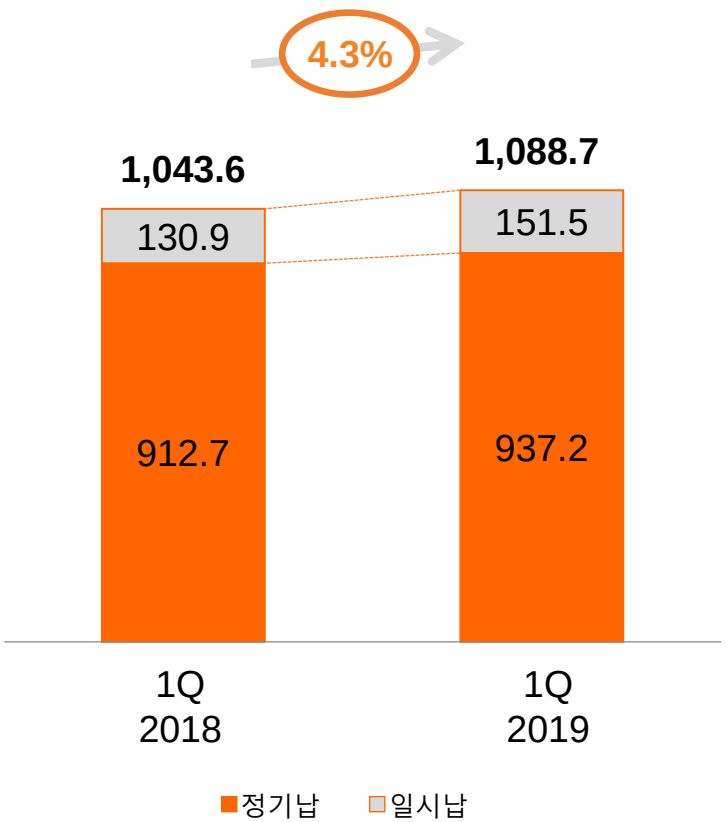
- ✓ FC채널은 보장성 믹스 증가 효과가 NIER 하향 영향으로 희석, '18.1분기 'Restated' 마진(33.4%) 대비 2.7%p 하락
- ✓ BA채널은 전년대비 판매물량 증가 불구 NIER 하락 영향이 컸던 관계로 3.1%로 마진 감소
- ✓ GA채널은 NIER 하향 및 비용 증가 불구 Pricing 및 상품믹스 개선 효과로 '18.1분기의 'Restated' 마진(8.0%) 대비 1.9%p 개선

주1) NIER: Net Investment Earnings Rate

06. 수입보험료 및 이익

수입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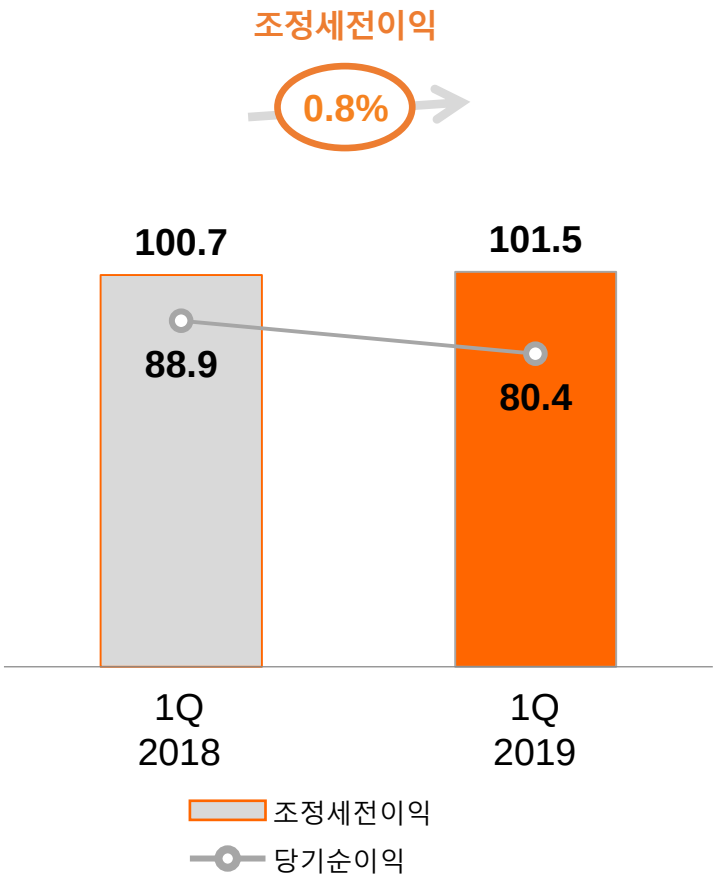
(십억원)



수입보험료: 변액보험 포함, 퇴직연금 제외

조정세전이익 및 당기순이익

(십억원)



조정세전이익=세전이익-투자실현손익(금융자산 및 외화처분손익, 손상차손)
2019. 1. 1 부터 IFRS9(금융상품)과 IFRS16(리스)을 적용함. IFRS9 적용시
IFRS4(보험계약)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, 과거 수치는 소급 재작성하지 않음

06. 수입보험료 및 이익

수입보험료 4.3% 증가

- ✓ 정기납은 2.7%, 일시납은 15.7% 증가
- ✓ 2019년 경영계획상 일시납 수입보험료 목표를 전년 대비 낮게 잡고 있는 만큼 향후 일시납 수보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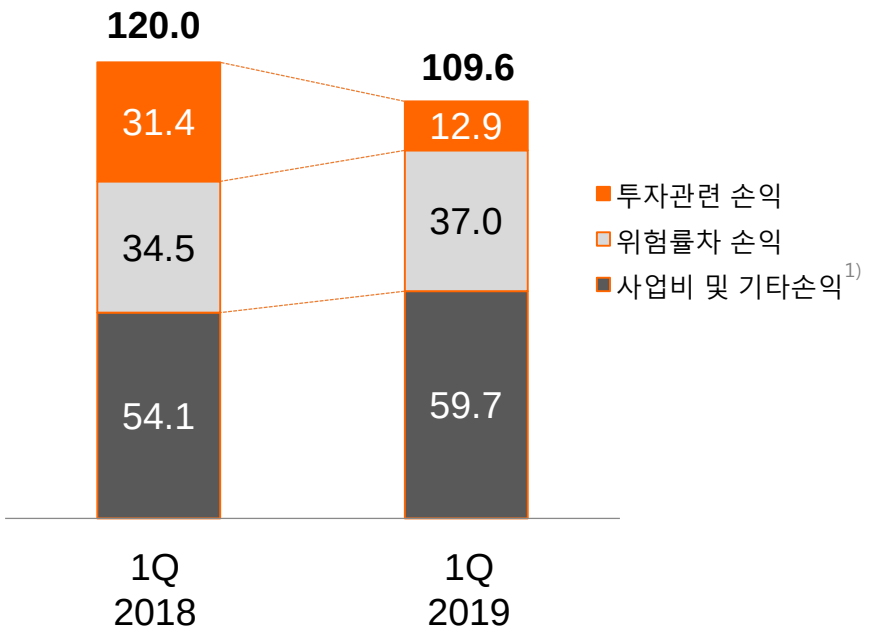
ORBT 소폭 증가 / PAT는 감소

- ✓ 투자실현손익 및 손상차손 등을 제외한 ORBT(조정세전이익)는 전년대비 0.8% 증가한 양호한 실적 달성
- ✓ PAT(순이익)는 전년동기 대비 채권 매각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락

07. 이원별 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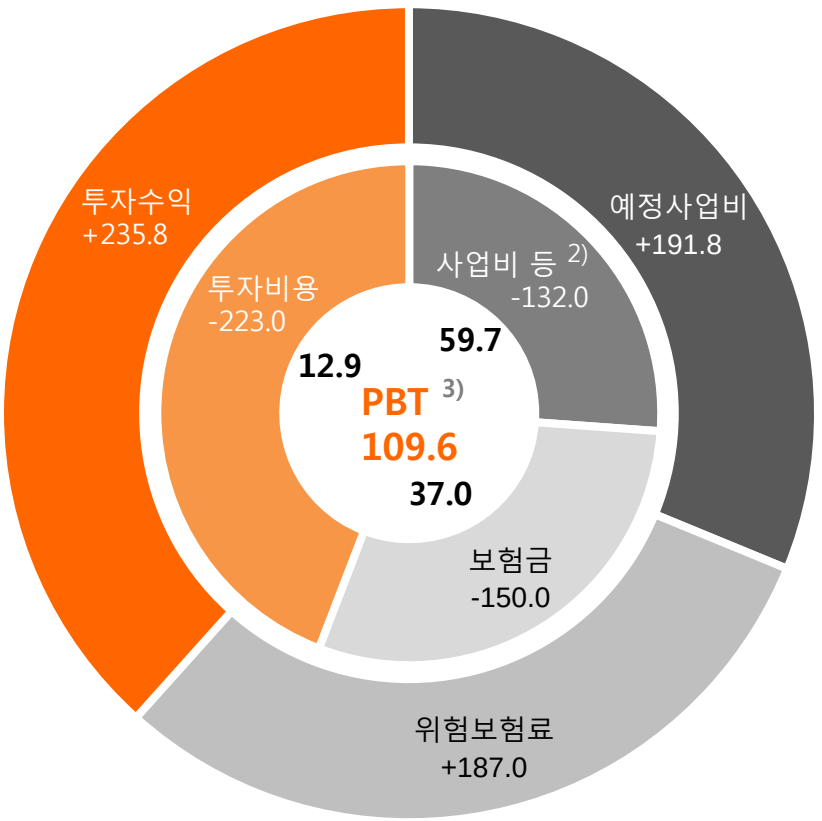
분기 손익 비교

(십억원)



이원별 손익 분포

(십억원)



주1) 기타손익: 준비금관련 손익, 실효해약관련 손익, 계약자지분관련 손익 등
주2) 사업비 등: 신계약비 및 유지비 – 기타손익
주3) Profit Before Tax (세전이익)

07. 이원별 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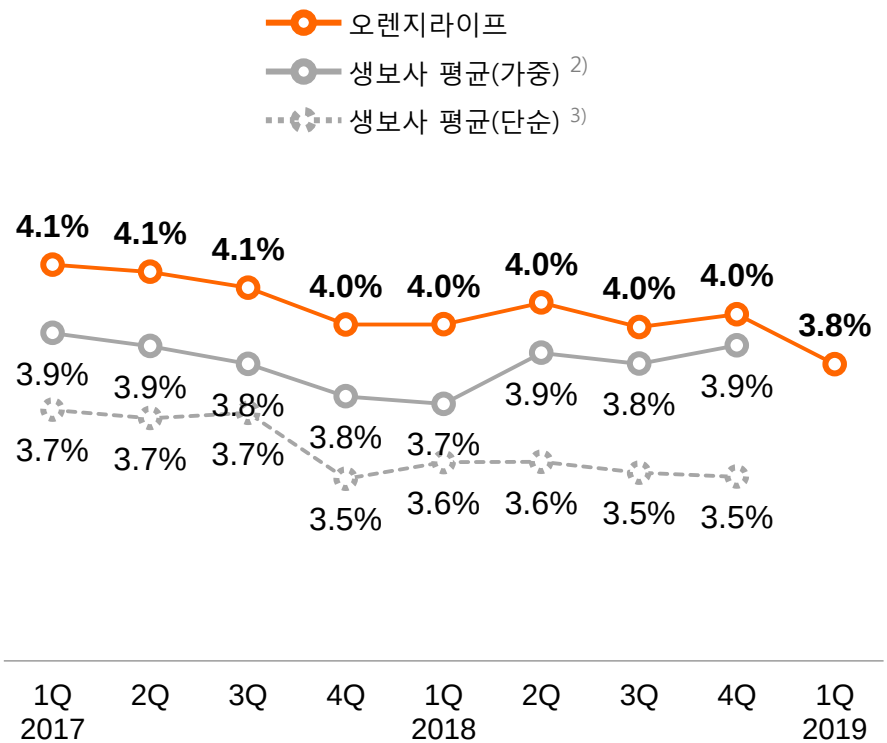
양(+)의 투자마진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이원별 손익 시현

- ✓ 1분기 사업비 및 기타손익은 전년동기 대비 56억원 증가, 위험률차 손익은 25억원 증가
- ✓ 투자관련 손익은 전년동기 대비 185억원 감소하였는데, 이는 투자실현손익이 감소한 가운데 보유계약 증대로 부담이자의 절대 금액이 증가한 때문

08. 자산운용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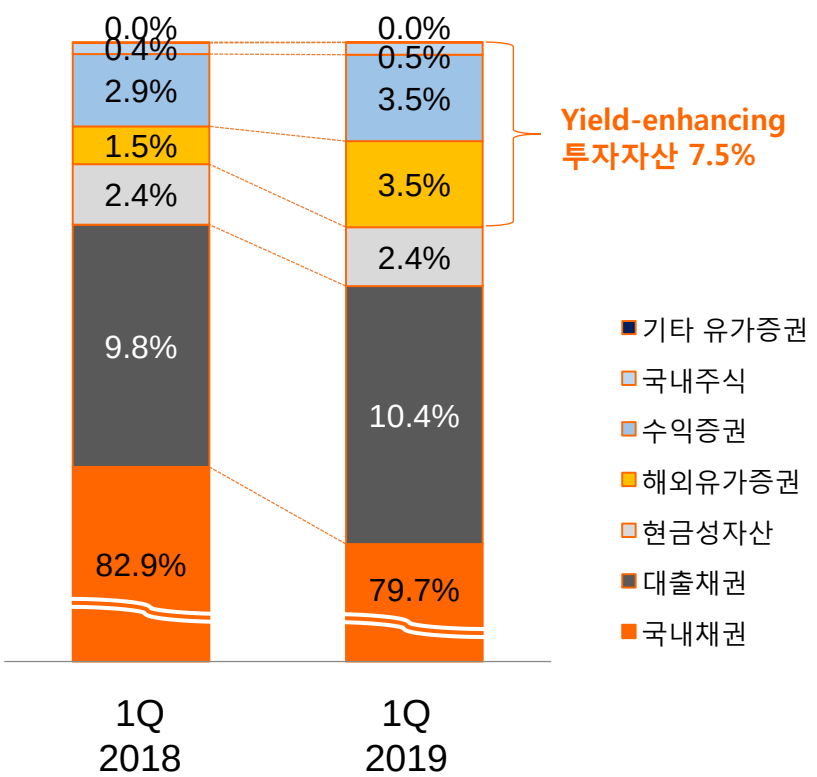
운용자산이익률[1)]

(%)



운용자산 포트폴리오[4)]

(%)



주1) 조정운용자산이익률(12개월 누계기준):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한 운용자산 기준
주2) 당사 포함 24개 생명보험사(2017년4분기까지) 가중 평균 기준, 2019년 1분기 타사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
주3) 당사 포함 24개 생명보험사(2017년4분기까지) 단순 평균 기준 , 2019년 1분기 타사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
주4) 2019.1.1부터 IFRS9(금융상품) 적용. IFRS9 적용시 IFRS4(보험계약)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(Overlay approach)을 적용, 과거 수치는 소급 재작성하지 않음

08. 자산운용 성과

운용자산이익률, 업계 평균 상회

- ✓ 국채 10년 금리는 '19. 1~2월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에 재차 하락하며 전분기 대비 12bp 하락
- ✓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신규매입이원 하락과 투자실현손익 감소로 11bp 하락한 3.85% 기록 ('18.1분기 3.9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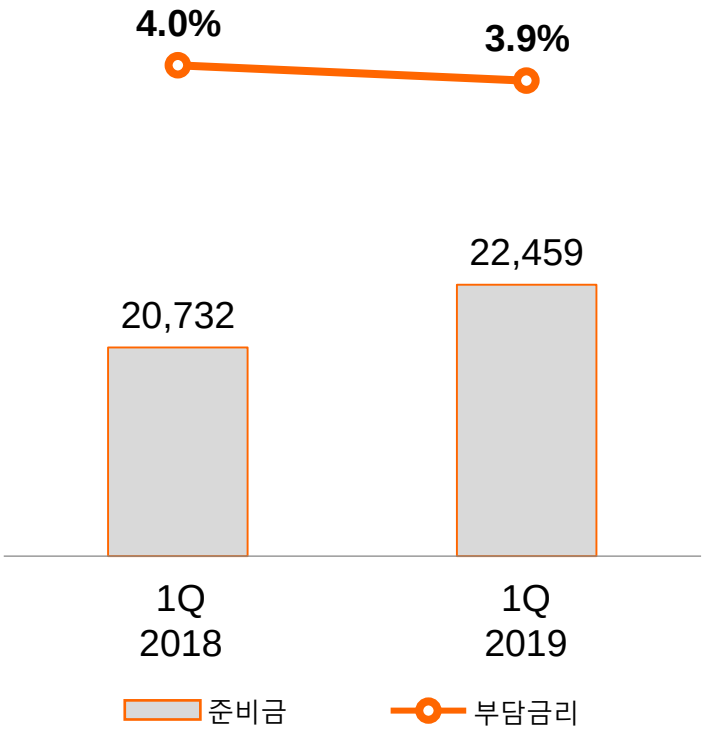
안전자산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

- ✓ Yield-enhancing Asset 비중 7.5%로 확대 ('18.1분기 4.9%)
- ✓ '19.1분기 중 Yield-enhancing Asset에 대한 신규 투자 결정은 없었으나, 기존 약정했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와 관련 320억원의 Capital call 발생
  - Yield-enhancing 전략의 일환으로 직접대출(Direct lending) 확대 검토
- ✓ 자산/부채 듀레이션 갭은 자산듀레이션 확장 및 부채듀레이션 단축으로 '19.1분기 0.58년으로 감소 ('18.1분기: 0.91년)
- ✓ 대출자산은 10.4%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대부분 고수익 안전자산인 약관대출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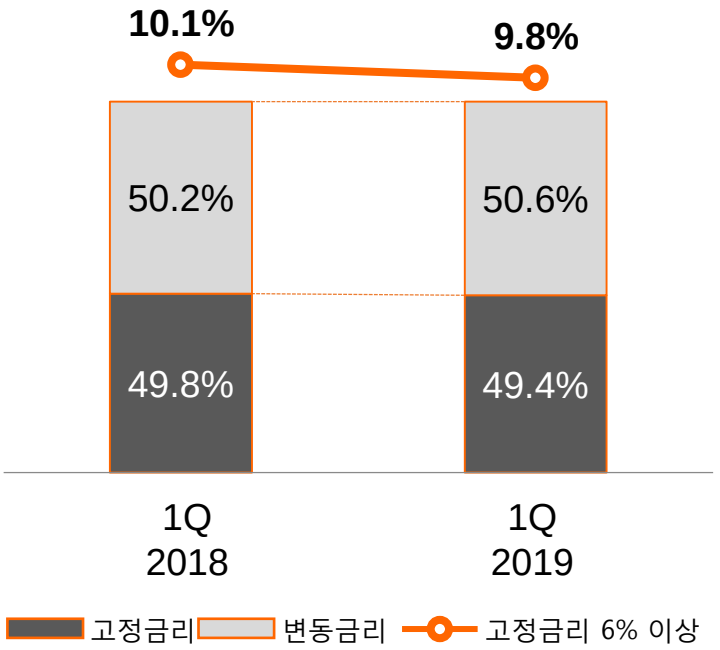
09. 준비금 및 부담금리

준비금 및 부담금리

(십억원)



준비금 구조



09. 준비금 및 부담금리

준비금 부담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

- ✓ 고정금리형 준비금의 평균 부담금리는 신계약 확대에 따른 희석효과로 4.95%에서 4.91%로 4bp 하락
- ✓ 변동금리형(연금·저축) 준비금의 평균 부담금리는 3.02%에서 2.95%로 하락
- ✓ 변동금리형 준비금 부담금리는 금리 변동 및 저축상품 시장의 경쟁 환경에 따라 달라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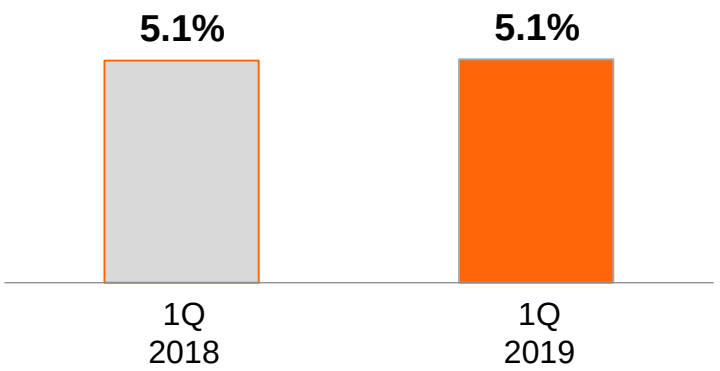
건전한 준비금 구조 유지

- ✓ 준비금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50% 수준이나, 6% 이상의 고금리 확정 부채는 10% 미만으로 하락
- ✓ '18년 하반기 이후 '19년 1분기까지 BA채널 신계약 물량이 확대된 결과 변동금리형 비중 소폭(0.4%p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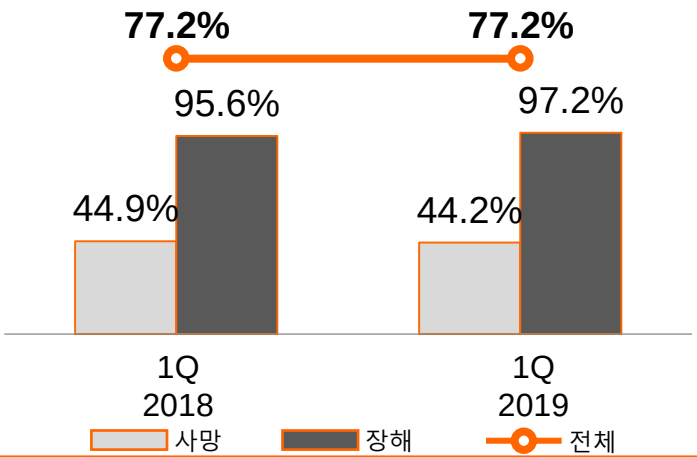
10. 효율성 – 사업비율, 손해율, 유지율

지속적인 효율성 개선

사업비율 (유지비/수입보험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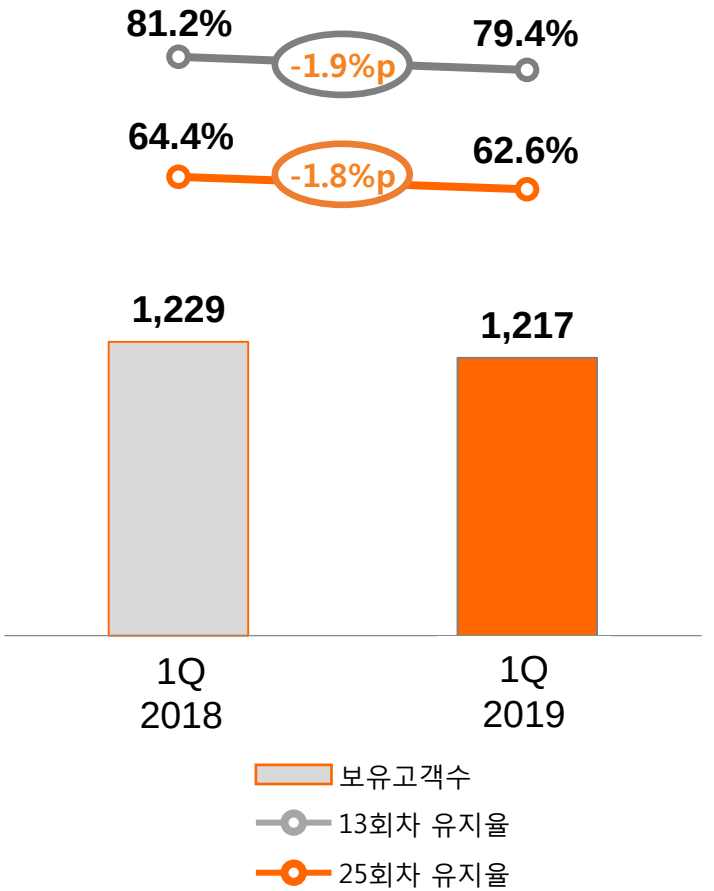


손해율 (사고보험금/위험보험료)



유지율 및 보유고객수

(천명)



10. 효율성 – 사업비율, 손해율, 유지율

사업비율/손해율

- ✓ 1분기 사업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.1%
- ✓ 1분기 손해율은 사망 손해율 하락이 장해 손해율 상승을 상쇄하며 전년과 동일한 77.2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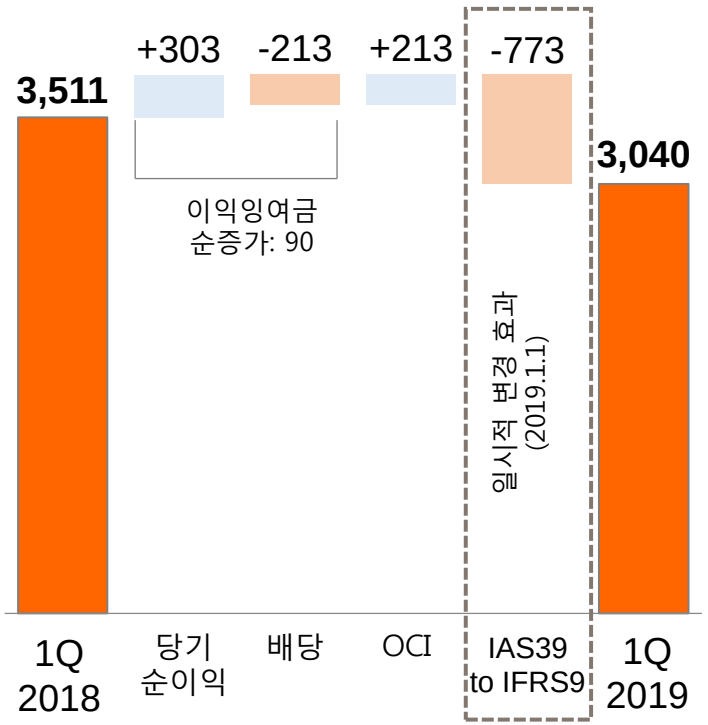
유지율/보유고객수

- ✓ 13회차 유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1.9%p 하락했으나, 직전분기 대비로는 0.4%p 개선
- ✓ 25회차 유지율도 전년동기 대비 1.8%p 하락했으나, 하락의 주된 요인들이 소멸되며 직전분기 대비 2.1%p 개선
  - '16년 FC 채널에서 판매되었던 고환급률 구조의 변액상품이 주식시장 하락 영향으로 조기 해약 증가
    → '17년 상반기 상품개정을 통해 조치
  - '16년 GA에서 판매된 상품의 수수료를 초기 2년이내 선지급한 영향으로 25회차부터 해약 급증
    → '17년 상반기 수수료 장기 분납체제 도입

11. 자본적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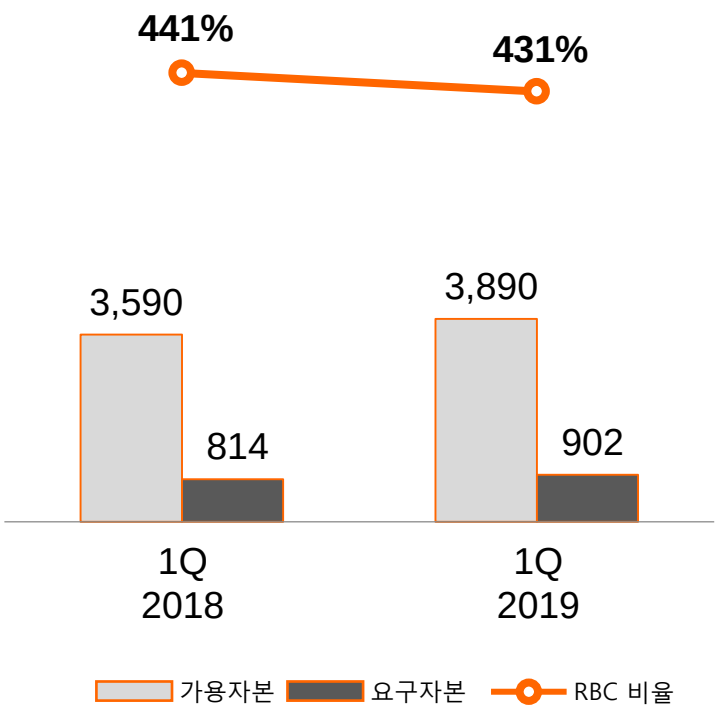
자기자본

(십억원)



RBC비율

(십억원)



OCI: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포괄손익누계액
2019.1.1부터 IFRS9(금융상품)과 IFRS16(리스)을 적용함. IFRS9 적용시 IFRS4(보험계약)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(Overlay approach)을 적용, 과거 수치는 소급 재작성하지 않음

RBC Ratio: Risk Based Capital Ratio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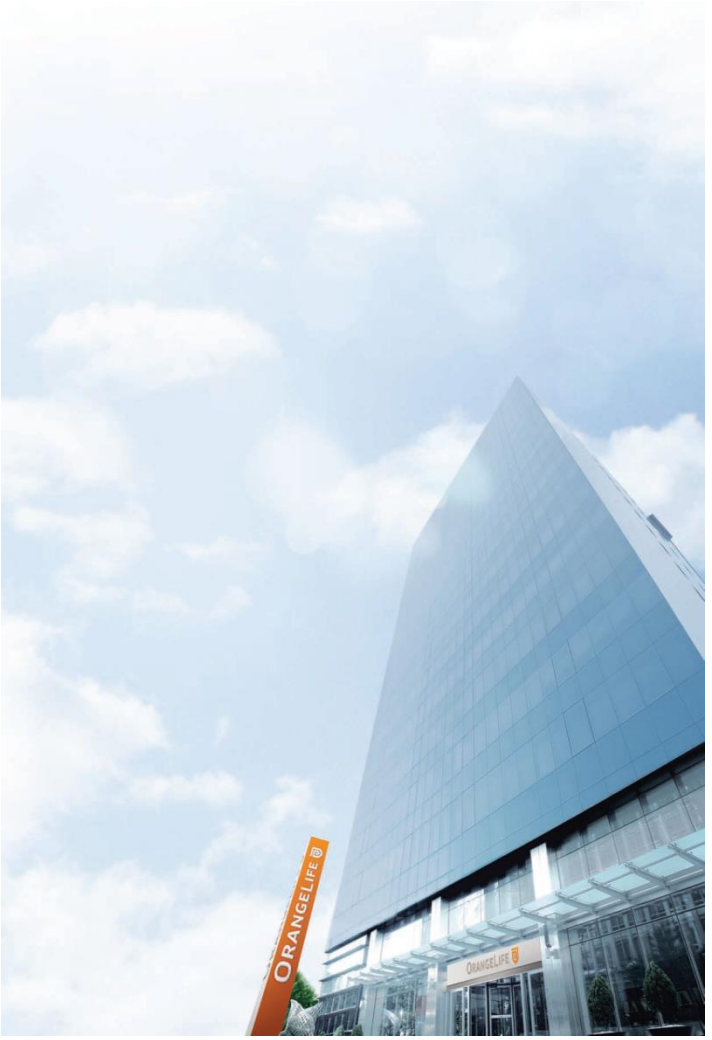
11. 자본적정성

회계 기준 변경으로 자기자본 감소

- ✓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IAS39를 IFRS9로 회계기준 변경
  - → IFRS9 적용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자기자본 7,730억원 감소 (회계기준 변경 영향 제외시 자기자본 전년동기 대비 3,030억원 증가)
- ✓ 1분기 ROE는 10.7% (IFRS9 자기자본 평잔 3조 195억원 기준)
  - → IAS39 기준 자기자본 평잔(3조 7,854억원) 대비 ROE는 8.5%

RBC비율은 431%로 견조

- ✓ IFRS9 적용은 RBC비율과는 무관
  - → RBC 산출시 가용자본은 감독목적 재무제표(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)를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
- ✓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모두 전년 대비 증가

12. 향후 실적발표 일정

2019년 2분기 실적발표는 2019년 8월 예정입니다.